지역 낙농인들 세밑 온정으로 겨울을 녹이다!

지역낙농가들이 소외된 이들에게 보낸 따뜻한 마음이 화제다. 어려운 낙농상황에도 주변을 돌보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낙농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선행의 주인공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역 복지시설에 멸균유 1,500박스 후원

서울우유 연천군 낙농축산계(계장 홍사필) 회원들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25일 연천군청에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기탁된 후원물품은 멸균유 1,500박스(1,500만 원 상당)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시설에 전달됐다.

우리협회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홍사필 계장은 "최근 살림살이나 경기가 IMF시기보다도 어렵다고 하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후원물품을 마련했다"며, "후원물품이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시설에 전달돼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연천군청 측은 "낙농가들의 따뜻한 마음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눔을 실천한 연천군낙농축산계 모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사랑의 연탄 5,700장 지정기탁

동진강낙농축협(조합장 김투호)은 관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김제시청을 찾아 사랑의 연탄 5,700장(340만 원 상당)을 지정 기탁했다. 김제시는 이번 동진강낙협의 지정기탁을 포함한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전달된 연탄을 김제시 주민복지과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으로 19개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어려운 이웃 가구당 300장씩을 지원했다.

김투호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낙농가들의 자발적인 선행과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를 돌아보고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김제시 측에 전했다.

6년째 불우 암환자 돕는 기부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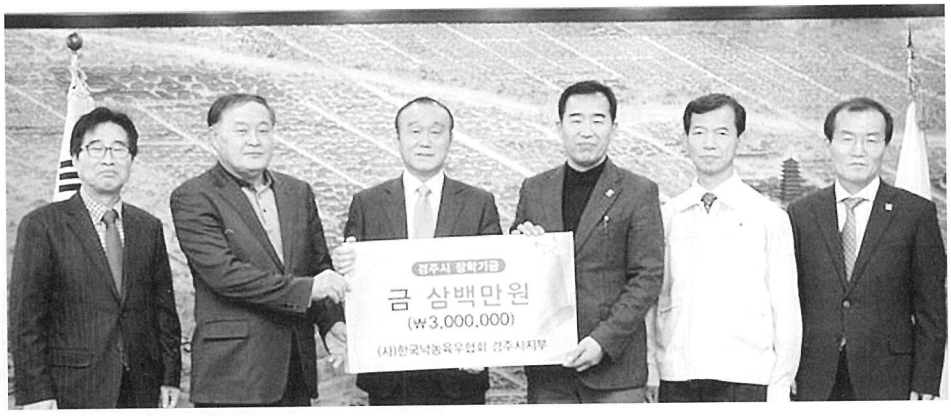
전남지역 낙농인들의 친목모임인 '낙농 일사천리회(회장 서정범 · 제일목장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화순전남대병원(원장 김형준)을 방문,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6년째 매년 후원금을 병원에 전달하고 있다. 이 후원금은 불우한 암환자

치료비와 생활안전자금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주 · 영암 · 함평 · 곡성 · 해남 등 전남 각 지역에 거주 중인 '낙농 일사천리회' 회원들은 15명. 6년전 암환자와 난치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후원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매년 화순전남대병원을 찾아 기부하고 있다.

병원 측은 "낙농인들 사랑이 암환자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수혈용 혈액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성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암치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장학금 3백만 원 기탁

우리협회 경주시지부(지부장 오용관)는 지난 12월 23일 경주시청을 방문, 장학금 3백만원을 경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협회 경주시지부는 해마다 지역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봉사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 협회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오용관 지부장은 "앞으로도 경주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인재가 양성되도록 물심양면 돕고 싶다"고 전했다.

경주시청 측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낙농육우협회 경주시지부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지역의 훈훈한 감동과 귀감이 되고 있으며, 정성어린 마음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